

정법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 써도 좋다

불교의 평화이념과 호국불교(1)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不殺生)”라는 계율을 갖고 있고 폭력에 반대하는 불교의 평화이념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는 호국불교의 이념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호국은 호법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부처님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 하는 것은 지배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며, 호국불교에서 타인의 잔혹한 행위를 저지하고 침략자의 살생 행위를 막는 것은 불살생계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필자는 연재를 통해 불교의 평화이념과 호국불교의 조화를 위해 우선 불교의 평화이념을 분석하고, 호국불교의 접근법을 검토한 다음, 호국불교가 부처의 평화에 대한 기본 가르침 및 불살생 계율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어느 정의에 따르면 평화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폭력이 이루어지는 전쟁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전쟁을 국가 간의 무력 충돌로 정의했으나 오늘날 전쟁은 국가 간에만 아니라 국가 아닌 정치단체와의 충돌과 선전포고 없는 전쟁·내전 등 많은 종류의 무력충돌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쟁은 ‘정치적 공동체 사이의 실제적이고 의도적이며 광범위한 무장 충돌’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국가가 아닌 정치적 실체와의 충돌이나 테러단체와의 충돌 등도 전쟁이라는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치공동체가 아닌 사적 목적의 충돌이나 단순한 전쟁의 위협 등은 전쟁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치체 간의 정치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한 실제적이고 의도적이며 광범위한 무장투쟁만이 전쟁에 포함될 수 있다.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정의할 때 평화를 위한 접근법에는 무력 공격을 무력을 통해 견제하고자 하는 현실주의 정책, 불의한 정치적 세력에 대한 응징을 합리화하는 “정의의 전쟁(just war)”, 그리고 방어 전쟁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pacifism)가 있다. 앞의 두 가지 접근 현실주의적 접근과 정의의 전쟁은 평화를 위한 방법으로 전쟁을 채택하지만 평

화주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반대하고 특히 특정한 형태의 폭력인 전쟁에 반대한다. 불교는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중 어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중에서도 절대적 평화주의와 조건적 평화주의 중에서 어느 노선에 가까운가? 이에 답하기 위해 먼저 불교의 평화이념을 살펴볼 것이다.

불교의 평화이념

평화는 불교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다. 부다가 가르친 좋은 생활은 ‘평화로운 상태’이며 부다가 성취한 초월적 실재인 열반의 특징 중 하나도 역시 ‘평화로운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좋은 생활을 위한 불교적 생활의 실천은 살아있는 생명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삶, 평화로운 삶과 일치하는 것이다. 부다가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했던 가르침은 모든 생명에게 내적인 평화를 얻게 하여 다른 생명들과의 ‘조화로운 삶’ 즉 ‘평화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다.

역사상 최초로 인도에서 대제국을 이루고 불교에 귀의하여 부처의 교법으로 대제국을 통치했던 아소카(Asoka) 대왕은 암석에 새겨진 칙령에서 그가 마지막 정복전쟁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느껴 불교에 귀의했음을 밝혔다. 아소카 대왕은 “전쟁의 북소리가 불법(산스크리트어의 Dharma, 팔리어의 Dhamma)의 북소리로 대체됐다”며 군사력 대신 정신적인 정복전쟁이 시작됐음을 선언했다. 아소카의 통치는 군사력과 위협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부다가 설교했던 자비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불법에 의한 통치를 본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는 부처님 법은 무엇인가? 부처의 교법은 8만 대장경의 방대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진정한 가르침인지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암베드카르(Ambedkar)는 불법(Dhamma)과 비법(Addhamma), 그리고 정법(Saddhamm)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불교 속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이론들과 속설들이 혼합되어 있다. 이 가운데 불법(Dhamma)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것 >생의 완전성에 도달하는 것 >열반의 상태 속에 사는 것 >갈애를 포기하는 것 >모든 사물은 무상하다고 믿는 것 >업(業, karma)이 도덕적 질서의 도구라고 믿는 것 등이다.

비법(Addhamma), 즉 불법이 아닌 것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 >창조신에 대한 믿음 >범아일여(梵我一如)에 관한 믿음 >영혼불멸에 대한 믿음 >동물회생 >역측에 대한 믿음 등이다.

정법(Saddhamma)은 불법 중에서 불교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인간사회의 평등을 촉진하는 것이다. 어떤 불법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이 세계를 정미로운 왕국(공동체)으로 하며 >지혜(만야)와 자비를 증장시키며 >모든 사회적 장벽을 해체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법이다.

평화를 위한 수행과 계율

부다는 중생의 실존을 고통으로 파악하고 고통의 원인을 무명에 근원을 둔 탐진치로 보았다. 따라서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문제도 인간의 내면, 즉 마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불교의 근본교리인 사성제(四聖諦)의 고집멸도(苦集滅道)에서 생로병사의 고통과 전쟁의 고통을 포함한 모든 고통의 원인은 갈애에서 비롯된 인간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갈애가 멀어지면 고(苦)가 없는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는 것으로 봤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중생에게는 원래 부처의 마음과 똑같은 청정하고 밝은 마음의 바탕이 있는데 밝지 못한 중생심에 의해 그것이 오염돼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한 수행방법으로서 초기 불교에서는 8가지 바른 길(八正道)을 말했다. 대승불교에서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수행덕목으로서 육바라밀(六波羅蜜), 즉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知慧)의 여섯 가지 덕목을 가르쳤다.

인간은 시작도 없는 오래 전부터 지어온 무명의 힘, 즉 업력(業力)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업을 해소하고 청정한 밝은 마음을 회복해야 제대로 된 생각과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을



서명대사 진영. 서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며 호국불교의 참모습을 실천했다.

비롯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근본적으로 밝지 못한, 즉 근본 무명에서 온다. 자신의 존재가 인연으로 화합된 유한한 존재임을 모르고 자신이 영원하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착각이 그것이다. “이것이 있음으로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서 이것이 있다”고 표현되는 연기는 바로 존재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을 말하는 것이다. 수행을 통해 자신의 존재와 타인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자각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다는 비폭력과 불살생을 가르쳤고 불살생의 계율을 제정했기 때문에 불교는 평화적인 종교로 알려져 왔다. 비폭력과 불살생의 원칙은 평화와 관련하여 불교가 기여해온 중요한 원칙이다. 오늘날도 우리가 소승(Hinayana)이라고 부르는 동남아의 상좌부불교(Theravada Buddhism)의 계율에서나 대승불교(Mahayana)의

범망경(梵網經)에서 살생계는 가장 중시되는 제일의 계율이다.

그러나 인도와 문화적 전통이 다른 국가주의가 강한 동아시아에 전해진 대승불교는 약의 세력으로 부터 정법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세워 승단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호국불교가 발전되었다. 불교도는 정법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해도 된다는 것이다. <승만경>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수할 것은 선수하고 절복할 것은 절복하라고 설하고 있으며 <대승열반경>은 “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를 써도 좋다. 그것은 계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했다.

정천구(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6)

평화이념으로서의 산띠(santi)

평화를 의미하는 힌디어(Hindi)는 산띠(Sānti)이다. 현재의 힌디어는 산스크리트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대승불교경전에 사용된 ‘산띠(sānti)’와 같은 단어이며, 한역불전에서는 적멸(寂滅)·적정(寂靜)·멸(滅) 등으로 번역된다.

산스크리트 산띠(Sānti)와 팔리어 산띠(santi)는 어근 삼(Sam)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범영(梵英)사전에 의하면, 삼(Sam)은 가라앉히다 (be calm), 평정(quiet), 평온함(tranquil), 만족하다(be satisfied), 진정시키다(be appeased), 누그러뜨리다(abate), 그치다(cease), 소멸시키다(be extinguished) 등으로 번역된다. 한자로는 적정(寂靜), 안온(安穩), 지시(止息) 등으로 번역된다.

산띠(Sānti)와 산띠(santi)에는 이 세 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팔리성경에서는 산띠 외에도 사마타(samatha)나 우빠사마(upasama)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산띠의 형용사로서의 산띠(santa)와 사마(sama)도 사용된다. 따라서 초기불교에서의 산띠의 원의와 그 이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의 용례와 의미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산띠(santi)는 삼(Sam)이라는 어근에서 생긴 여성명사이며, 산띠(santa)는 삼(Sam)의 과거분사이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산띠(santa)는 산띠(santi)의 형용사형이 될 수는 없지만, 용법상으로는 의미 내용상에서는 산띠-빠다(santi-pada, 寂靜句 혹은 寂靜의 道)는 그대로 산띠-빠다(santa-pada)로 쓰이고 있다.

<숫타니빠따(Suttanipāta, 經集)>의 제784계 산띠(santi)라는 단어가 나온다. 즉 “청정하지 못한 교리를 도모하고 구성하고 선호하면서, 자기 안에서 그 공덕을 본다면, 그야말로 불안정한 평안에 의존하는 것이다.”(Sn 784) 그런데 <마하닛테사(Mahāniddeśa, 大義釋)>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산띠(santi)를 세 가지로 해석했다. 이른바 앗잔따-산띠(accanta-santi, 究竟寂), 따당가-산띠(tadaṅga-santi, 彼分寂), 삼무띠-산띠(sammuti-santi, 世俗寂)이다.

첫째의 앗잔따-산띠란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불사(不死)·열반(涅槃)의 경지를 말한다. <쌍윳따 니까야>에 나오는 다음의 대목이 이에 해당된다. 즉 “이것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의 평정(samatha), 모든 집착(upadhi)의 포기(paṭinissagga), 갈애의 소멸(taṇhakkhaya), 탐욕에서 벗어남(virāga), 적멸(nirodha), 열반(nibbāna)이다.”(SN I, p.136)

둘째의 따당가-산띠란 번뇌의 일부가 선정(禪定)에 의해 일시적으로 억눌린 경지를 말한다. <앙굿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다음의 대목이 이에 해당된다. 즉 “형상을 초월하여 형상을 여인 고요한 해탈에 몸을 접촉할 수 있지만, 번뇌가 부서지지 않아 번뇌 없는 마음에 의해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재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연결고리에서 아직 불안정한 것이다.”(AN IV, p.316)

셋째의 삼무띠-산띠란 세속에서의 평정(平靜)한 상태를 말한다. 초기불교 문헌에서는 “62가지 악견을 소멸시킨 상태”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마하닛테사>는 산띠(santi)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 첫째는 불사(不死), 반야(般若)를 의미하는 구경적이고, 둘째는 사신사무색정(四禪四無色定)의 각각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멸해지는 경우를 나타내는 피분적(彼分寂)이며, 셋째는 62가지 악견(惡見)을 멸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세속적(世俗寂)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울장>에서는 불교교단에서 일어난 정사(靜事)를 진정시킨다는 ‘아디까라나-삼따타(adhikarana-samatha, 滅靜)’를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한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사주프로그램CD

명리보감

命理寶鑑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1. 명리작명판
사주명리 + 작명 + 궁합 + 택일 + 고객관리
2. 명리통합판
(1.명리작명판) + 주역.육효 + 자미두수 + 양택
3. 기문통합판
(2.명리통합판) + 기문 + 육임 + 구성학 + 현공

사주명리.육효 동영상강의DVD제공하여 초보자도 공부하며 사용가능.

NAVER 통합검색 명리보감 검색 www.goodcycle.com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 031)493-3581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희망하는 마음으로 2012년 3월 완공 예정을 앞두고 달마동(33세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흥성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소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임야번지 산 193-1)
 세대수 33세대 : 평형(10,12,13,21,23평)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원
 특혜 : 계약금과 동시에 11월 30일까지 완불자에게는 잠자는방 1개를 편백나무(소나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겠습니다.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서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완공예정일 : 2012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지 휴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